



韓國과 美國: 2000년의 世界經濟

James T. Laney(駐韓 美國大使)

이 글은 제임스 레이니 美國大使가 1995년 3월 29일 “2000년대 : 세계경제와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본 연구원이 개최한 특별강연회에서 행한 연설의 全文임.

미국 중부에 있는 중간 규모의 도시 교외에 전형적인 商街가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도와 주는 용역회사인 ‘H&R Block’회사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맥도날드와 “분위기”를 파는 최신 유행의 식당들, 그리고 여가를 즐기도록 도와주는 스포츠 센터들 사이에 現代自動車 販賣 代理店이 있습니다. 그 건물 주변의 주차장에는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의 경영주들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장식물들이 사람의 눈을 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새 차들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을 기다리면서 유리창 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 뒷 편에는 정비와 수리를 하는 큰 차고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광경으로 이 대리점은 미국 3大 자동차 회사가 운영하는 대리점과 꼭 닮았습니다. 이 광경의 다른 측면도 역시 전형적입니다. 이 곳에서는 대리점 소유주, 관리자, 판매담당 직원, 그리고 보조직원 등 수십 명이 일합니다. 뒷 편의 수리 공장은 기계공, 부품공,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 등 상이한 팀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항상 매력 있게 가꾸는 일을 하는 남녀 작업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든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승용차의 판매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이 대리점이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서는, 금융기관과 기타 서비스 산업체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리점의 존재로부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득을 봅니다.

이 미국 도시에 「現代」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또다른 부류의 사람들 — 즉, 고객들 — 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바로 그들이 바라는 승용차를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 승용차의 스타일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들은 현대 승용차의 매우 경쟁적인 가격에 매력을 느낍니다. 1994년에 2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현대

자동차 등 한국산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現代는 미국 시장에서 다른 승용차 제작회사들과 판매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자동차 제작회사들은 現代에게 경쟁적 우위를 부여한 현대에서 채택한 특색에 필적하는 장점을 고안해 내야 했으며, 이들 회사의 지방 대리점들은, 그들의 승용차가 現代라는 경쟁상대 때문에 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현대자동차의 가격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엄격히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즉, 현대가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승용차를 보다 싼 값에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일부 사람들이 외국산 승용차를 구입한 이웃사람을 배반자로 간주하던 시기가 있었고, 의회 의원이 대형 쇠파지로 외국산 승용차를 때려부수어 뉴스 꺼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에 묘사한 광경은 한국에서 보다 잘 이해되어야 할 하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투자를 주창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이 안겨주는 혜택은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이거나 장차의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것들은 이를 식별하기가 용이하며,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구호나 이미지 안에 요약하여 담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부추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승용차가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상상하기는 쉽습니다. 본인이 가공의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한 주장 이상으로 효과있는 주장을 제시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주장은 참된 주장입니다.

본인은 保護貿易主義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라, 미국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현실은 미국에서 孤立主義와 國際主義 사이에 벌어지는 논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경쟁하라, 후퇴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 좋은 충고인데, 사실 이는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경제는 뒤떨어지고, 그 국민들에게는 이에 따른 불리한 조건이 안겨집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은 우리 미국의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양국간·지역간·다자간의 바탕에서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며 수출촉진을 위한 公共-民間 部門의 강력한 제휴관계를 이룩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자유무역의 혜택을 확신시키는 일은 미국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용기있게 世界化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2000년까지 국제무역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세계화는 口號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지니는 의식으로 발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인은 35년 동안 敎職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강연하는 데에 익숙합니다만 대부분의 강연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강연은 그 강연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어떤 강력하고 내부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무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유무역과 투자를 찬성하는 論據를 주장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아무리 자유무역을 주장한들 이의 혜택을 확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한국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본인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무역총액은 4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가 우리 두 나라 국민들에게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측은 수출액 10억 달러마다 19,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41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품을 생산하는 일자리를 갖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 더욱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경제는 미국경제보다 더 노동집약적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액 10억 달러가 3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작년에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용역은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 거의 74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양국간 무역의 순전한 물량만도 이 무역이 지닌 매력의 하나인데, 양국간의 무역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같은 交易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미국의 對韓 수출 200억 달러는 엄청나게 광대한 여러분의 隣接國인 中國에 대한 수출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개방된 미국시장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데, 한국이 누리는 혜택은 한국 자신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倍加될 것입니다.

무역자유화가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테마, 즉 개혁과 세계화를 추구하셨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테마는 완전히 양립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개혁운동을 통해 한국 정치제도의 부조리를 시정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함에 있어 그 분은 외부세계에 대한 舊態依然한 태도에 갖든 부조리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분야 역시 개혁을 위한 또다른 적절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국제무역체제에 크게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개조할 차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세계는 한국에 그 지위를 부여할 차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이 GATT에서 수행한 역할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행할 역할 — 김철수 WTO 사무차장께 축하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수행할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진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이같은 국제기구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수출입 양 방향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진정하고 실제적인 公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같은 개혁은 너무나 자주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회담의 특징이 되어 온, 일반 대중이 몹씨 못마땅해 하는 일이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한국이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다음 단계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1947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본인이 보았던 한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주로 경제발전과 무역 때문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발전을 복돋운 요소들은 상존합니다. 한국민은 40년에 걸친 발전을 이룩하게 만든 企業家的인 대단한 용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지난날과 똑같은 교육받고, 기술을 지닌 훈련된 노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같은 요소들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황폐화를 수반한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된 끝에, 한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전쟁 후, 한동안 한국은 미국 원조의 受惠國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출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좀 더 오래 동안 한국을 원조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성장은 한국인의 활력, 노우하우, 기업정신 등이 원동력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

국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계속 개방되었던 미국 시장의 덕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국측에 대한 互惠的 조치 — 한국시장 개방조치 — 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시장 개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무역체제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세계무역체제를 뒷받침하는 체제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반자이므로 한국의 정책들은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인은 미국이 왜 通商 면에서 한국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외부 — 흔히 “미국” — 의 요구에 대한 한국민의 격분을 조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그것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들에 관해서는 하등의 의심을 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1번 째로 큰 경제대국으로서 한국경제는 여러 유럽 선진국가들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8천 내지 1만 달러인데, 이것은 세계의 상류 國家群의 한 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일곱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새로운 지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계속 다른 나라들의 침략적인 무역정책의 피동적 희생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관한 忠告의인 결론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적인 세계무역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豫言的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개방을 통해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駐韓 미국대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한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한국민들을 도와주는 노력을 하는 데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여러분을 그러한 설득 노력에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韓國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종속된 나라가 아니며, 한국이 과거 미국의 원조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거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에 따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종전보다 더 완벽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쟁과 戰後 한국발전 초기 수년 동안 미국인들의 역할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해 제공한 안전보장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눈부신 업적이 우리의 덕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군사관계 때문에 우리가 무역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국제문제나 쌍무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지시대로 따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自國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강력하고 성공적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애써 얻은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한국이 떠맡기를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UN평화유지활동에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놀라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의 리더格의 나라들에게 세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재정원조 요청에 대해서도 놀라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富에는 동시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김대통령은 최근의 유럽 여행에서 한국이 이러

한 역할을 떠맡을 것임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놀라서는 안됩니다. 결국, 주로 다른 나라 시장들에 대한 접근권이 한국에게 오래 동안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성장해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互惠的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 곳에서는 너무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로 보도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만,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무역문제들이 걱정적인 — 때로는 폭력적인 — 민중 데모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에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互惠主義를 위한 외국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公正을 위한 요구마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제관계에서 견해차이가 없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협조적 국제관계의 실제 내용에는 견해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견해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합리적인 협상이나 온당한 타협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은 하나의 표본적인 事例로서 미국과 캐나다와의 관계를 들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상대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입니다. 사람들과 상품들은 매우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왕래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문자 그대로 수백의 견해차이가 들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캐나다나 한국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데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인들도 미국 무역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무역 및 투자 문제들은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진실을 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개방이 富國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개방은 한국이 이미 애써 얻은 번영을 간직하고, 한국을 계속 보다 큰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한국이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과 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對韓투자를 원하게 되도록 한국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의 과학기술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과학기술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인 제후자들과 그 기술을 나누는 일이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보게 되도록 한국경제를 자유화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가 허약한 산업들을 낳게 한다는 점, 즉 한국의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공개경쟁 세계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되면, 이들이 보다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며, 보다 강력한 제도와 기관들은 한국민들에게 보다 낮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이미 해외에서 자기들의 경쟁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한국민들이 아직도 보호되고 있는 곳은 한국 국내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역에 관한 견해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 견해차이의 해결은 사업에 있어서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 협상과 타협은 필요한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다음 달에 미국의 8개 주요 도시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매력과 한국에서의 사업기회에 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은 한국 경제전문가들이 그러한 설득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을 둘러싼 큰 분쟁들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동안 계속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민들에게는 자유무역의 현실에 관한 소식과 정보가 더 잘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민들은 실제로 자기들 자신에게 유익한 개혁에 직감적으로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본인은 한 미국 도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관한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게 이로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유익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국민들이 이것을 믿게 될 때까지 한·미간의 관계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일들에 계속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2000년에 이르면, 자유무역은 많은 나라들을 어마어마하게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자유무역의 결과로 얻게 되는 **富**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富**와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기여는 한국 자체를 위해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안정을 간직케 할 것이며, 또 보다 많은 무역상대국들을 위해 그것들을 이룩하면 세계 전체 체제의 안정은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세계化** — 본인이 말하는 **진정한 세계化** — 즉, 세계에 대한 개방이 한국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한국민들에게 납득시킨다면, 한국은 이러한 결과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덜 고통스럽게 이룩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